

# 賀麟의 直覺說 研究

연재함\*

**주제분류** 중국철학, 현대철학

**주요어** 하린(賀麟), 이지(理智), 직각(直覺), 육象山(陸象山), 주희(朱熹)

## 요약문

현대 중국철학의 발전과정 속에서, ‘理智’(understanding)와 ‘直覺’(intuition)에 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수명과 응심력이 理智보다 直覺을 중시하며, 直覺을 통해 철학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역설한 반면 풍우란은 직각은 신비한 경험일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賀麟은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지양하며 理智와 直覺의 융합을 주장하였다.

賀麟은 인간의 주체인 마음(心)을 ‘心理的 意義의 마음’과 ‘論理的 意義의 마음’으로 구분하였다. 賀麟에게 있어 論理的 意義의 마음은 理想的이고 초경험적인 정신적 원칙으로 ‘心卽理’의 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섭하고 지식을 이루며(眞), 행위를 주재하고(善), 가치를 평가(美)할 수 있는 진정한 주체를 의미한다.

賀麟이 생각했던 直覺은 論理的 意義의 마음이 대상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 대상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감상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功能을 지니고 있다. 賀麟은 理智를 중심으로 직각을 ‘先理智的 直覺’과 ‘後理智的 直覺’을 구분하였다. 이 두 직각 가운데 後理智的 直覺만이 ‘경험이며 방법’이란 진정한 直覺의 의미를 지닌다.

賀麟은 直覺의 기능과 작용을 ‘내부를 향한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反省式 直覺’과 ‘외부를 향한 관찰과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透視式 直覺’으로 구분하였다. 賀麟은 本心の 회복을 강조하는 陸象山의 철학을 反省式 直覺으로, 讀書와 格物致知를 중시하는 朱熹의 철학을 透視式 直覺으로 說明하였다. 賀麟은 특히 朱熹의 透視式 直覺을 중시하였다. 賀麟은 일

---

\* 공군사관학교

종의 體驗으로써의 朱熹의 독서법과 格物致知說은 虛心切己한 태도를 지닌 主體가 天理를 함축한 성현의 책을 통해 天理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감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賀麟은 나아가 이를 통해 眞善美를 체험하고 나아가 主客대립을 초월하여 主客合一 心與理一 本心回復의 정신적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賀麟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스피노자 칸트 키에르케고르 베르그손 딜타이 등 서양 철학의 이론을 수용하여 자신의 直覺說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동양과 서양 朱熹와 陸象山의 철학적 分岐를 융합하고 중국 철학의 현대화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賀麟의 直覺說은 비록 後學들의 커다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지녔던 문제의식과 서양 철학에 대한 수용 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의의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 이끄는 말

現代新儒學 내지 중국 대륙 문화보수주의의 변화 발전 과정 속에서, ‘理智’와 ‘直覺’에 관한 논의는, 진리를 파악하는 인식 방법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철학 자체에 대한 관점 및 中西 철학에 대한 이해와도 연관된 중요한 의의를 지닌 문제이다.

현대신유학의 기초를 세운 인물 가운데, 양수명은 일찍이 理智와 直覺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理智에 대해 양수명은 “‘比量智’는 오늘날 이른바 ‘理智’이며, 우리들의 심리적 방면에서 知識을 구성하는 일종의 작용이다.”고 말하였다.<sup>1)</sup> 이와 달리 直覺은 주로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양수명의 설명에 따르면, “直覺이 인식하는 것은 意味, 精神, 趨勢 혹은 傾向일 뿐이다. … 이러한 의미는 단조로운 감각이나 고정된 개념과는 다르며, 실제로 살아있는 형세(形勢)이다.”<sup>2)</sup> 그리고 熊十力 역시 理智와 直覺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진리를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 웅심력은 ‘性智’로써 자각하는 것과 ‘量智’로써 인식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웅심력은 “과학이 의지하는 도구는 理智인데, 理智로는 철학의 영역 속에서 本體를 획득할 수 없다. … 相應함을 實證하는 것을 性智라고 부른다. 이 性智는 量智와 다른 것이다. … 性智는 참된 자아의 깨달음이다. 여기에서 참된 자아라는 말이 바로 性智를 일컫는다.”<sup>3)</sup> 웅심력에게 있어 量智와 性智는 각각 理智와 直覺에 해당하며, 특히 性智는 本心 良知의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부터 양수명과 웅심력은 모두 理智와 直覺의 의미와 작용을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며 동시에, 直覺이 理智에 비해 더욱 우월하고 중요한 함의를 지녔다는 것을 강

1) 梁漱溟, 『東西文化及其哲學』, 商務印書館, 1999년, 78쪽.

2) 梁漱溟, 『東西文化及其哲學』, 80쪽.

3) 熊十力, 『新唯識論』, 中華書局, 1985년, 249쪽.

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수명 응심력과는 달리, 풍우란은 直覺으로 철학적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반대하였다. 풍우란은 “철학은 理智의 산물이며, 철학자가 이론을 세우고자 한다면 반드시 論證으로써 그것이 성립하는 바를 증명해야 한다.”<sup>4)</sup>, “直覺을 방법으로 삼아 우리가 일종의 신비한 경험(이 경험이 과연 ‘實在’과 부합하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괜찮다. 直覺을 방법으로 삼아 우리가 일종의 철학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不可하다.”<sup>5)</sup>고 말했다. 풍우란의 견해에 따르면 철학적 진리는 반드시 理智에 기초해야 하며, 直覺은 일종의 신비한 경험일 뿐이다.

이러한 주장들과는 달리, 賀麟은 “直覺과 理智는 각기 그 쓰임이 있으며 서로 어그러지지 않는다.”<sup>6)</sup>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직각과 이지의 대립을 해소하고 양자를 융합하는 인식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실제로 賀麟에게 있어 理智와 直覺에 관한 이해는 인식차원에 속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의 唯心論 文化理論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賀麟은 반드시 중국문화의 발전과 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賀麟은 문화의 관건은 사람들의 精神 마음(內心)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바꿔 말하자면, 문화는 정신의 顯現 이기에, 한 민족의 문화는 바로 그 민족의 정신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賀麟은 心體物用的 唯心論으로 문화이론의 기초를 삼았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 있어, 賀麟이 말한 直覺은 인식의 문제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과 문화를 함께 연계시키는 基點이 된다. 그러므로 賀麟의 철학에 있어 直覺의 함의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馮友蘭, 『中國哲學史』(上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년, 6쪽.

5) 馮友蘭, 『中國哲學史』(上冊), 5쪽.

6)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近代唯心論簡釋』, 商務印書館, 2011년, 84쪽.

賀麟은 일찍이 「宋儒的思想方法」(1936년), 「讀書方法和思想方法」(1943년) 등을 통해 理智와 直覺의 문제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두 편의 글을 중심으로 賀麟의 直覺에 관한 견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理智와 直覺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賀麟이 제시한 直覺의 함의와 구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賀麟이 중시했던 朱子の 直覺法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 2. 理智와 直覺

賀麟은 “중국은 평소에 오로지 한 사물의 實用目的 效果를 중시하는 사상적 습관을 양성하였을 뿐, 한 사물의 本性을 연구하는 사상적 습관을 기르지 못하였다. 만일 이러한 思想上的 선입견 내지 습관이 타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과학적 지식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sup>7)</sup> 이 문제와 관련하여 賀麟은 후일 “현묘하여 형이상학적이지만, 오히려 有無 主客을 소통시키는 교량을 소홀히 하였고, 본체로부터 현상으로 들어가는 논리적 주체가 부족하였다.”라고 말하였다.<sup>8)</sup> 이와 같은 賀麟의 관점은 중국의 전통 철학 가운데 과학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논리적 주체가 결여되었다는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賀麟은 인간의 주체성을 대표하는 마음(心)을 ‘심리적 의미의 마음’과 ‘논리적 의미의 마음’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賀麟은 “논리적인 마음이 곧 理이니, 이른바 ‘心卽理’라는 것이다. … 논리적 의미의 마음이 바로 理想的이고 超經驗的인 정신적 原則이지만, 經驗 行爲 知識 및 평가의 주체가 된다. 이 마음이 곧 經驗의 統攝者이자 行爲의 主宰者이며, 지식의 組織者이고 가치의 評價者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9)</sup> 이를 통해 賀麟의 철

7) 賀麟, 「讀書方法和思想方法」 『文化與人生』, 商務印書館, 1988년, 176쪽.

8) 呂希晨, 『中國現代文化哲學』, 天津人民出版社, 1993년, 450쪽에서 재인용. 원래는 「賀麟傳略」, 『晉陽學刊』, 1985년, 第6期에 실려 있는 내용임.

학 속에서, 이른바 ‘논리적인 마음’은 理想的이고 超經驗的인 정신적 원칙 즉 ‘理’일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섭하고, 행위를 주재하며(善), 지식을 조직하고(眞), 가치를 평가(美)할 수 있는 진정한 主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賀麟이 이처럼 ‘논리적 의미의 마음’을 제기한 것은 논리적 주체와 도덕적 주체의 合一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直覺에 관해 賀麟은 양수명 응심력과 풍우란 사이의 대립을 융합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賀麟은 직각이란 일종의 經驗이자 또한 일종의 方法이라고 주장하였다. 賀麟은 경험으로서의 직각은 “생활의 태도, 정신적 경지, 신비한 경험, 영감의 계시, 지식에 있어 갑작스런 즉각적 깨달음 혹은 영감의 발동”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일종의 방법으로서의 직각은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고 實在를 파악하게 도와주는 功能 혹은 技術”이라고 말하였다.<sup>11)</sup> 그런데 賀麟이 「宋儒的思想方法」의 要旨는 “陸王이 말한 致知 혹은 致良知나 程朱가 말한 格物窮理는 모두 과학적 방법이 아니며, 그들이 이른바 心學 내지 理學을 탐구한 것 역시 우리들이 말하는 哲學 내지 형이상학적 直覺法이다.”라는 점에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12)</sup> 그러므로 賀麟이 ‘경험으로서의 직각’에 비해 진리를 인식하고 實在를 파악하게 도와주는 ‘방법으로서의 직각’을 더욱 중시했다고 말할 수 있다.

賀麟은 理智를 중심으로 直覺을 ‘先理智的 直覺’과 ‘後理智的 直覺’으로 구분하였다. 先理智的 直覺에 대해, 賀麟은 “먼저 직각의 방법으로 그 전체를 洞見하고 그 은미함에 깊이 파고 들어간 뒤에 理智로써 이 전체

9) 賀麟, 「近代唯心論簡釋」, 『近代唯心論簡釋』, 商務印書館, 2011년, 1쪽.

10) 鄭家棟의 견해에 따르면, 논리적 인식과 이성적 사변을 중시하는 서양철학과 도덕적 평가와 직각적 體悟를 중시하는 중국철학의 결합을 자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 賀麟의 철학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기본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鄭家棟, 『現代新儒學概論』, 廣西人民出版社, 1990년, 232쪽.

11)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2쪽.

12)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78쪽.

를 분석하여 그 은미함을 분명하게 밝힌다.”<sup>13)</sup>, “先理智的 直覺은 단지 경험일 뿐 결코 방법이 아니다.”<sup>14)</sup>라고 말하였다. 賀麟의 설명방식에 따르면, 先理智的 直覺은 理智보다 앞서 있는 直覺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미 경험의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종의 感性直覺이라고도 불린다.

賀麟이 말한 後理智的 直覺은 먼저 理智를 사용한 이후에 直覺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賀麟은 “국부적인 연구, 자질구레한 분석에 종사하다가 오랜 뒤에 점차 直覺의 助力을 의지하여 그 전체를 살펴봄으로써 그 안에 담긴 의미를 洞見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sup>15)</sup> 그리고 또 後理智的 直覺은 “경험이자 또한 방법”이라고 말하였다.<sup>16)</sup> 賀麟의 철학체계에 있어, 이른바 先理智的 直覺은 비록 일종의 直覺이라 불리지만 결코 방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이른바 後理智的 直覺이라야 비로소 “경험이자 또한 방법”으로서 진정한 直覺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만한 것은 방법으로서의 後理智的 直覺은 理智의 작용을 그 내면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賀麟은 인간에게 感性 知性 理性이란 세 가지 인식 능력이 주어졌다고 생각했다. 賀麟이 말한 先理智的 直覺은 칸트가 말했던 感性에 해당하며, 일종의 混沌된 경험에 불과할 뿐 지식이 아니다. 만약 知性和 理性이 없다면, 감성은 협의의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 知性は 理智의 분석을 진행하여 과학적 지식을 건립할 수 있지만, 부분적인 연구에 국한된다. 만약 理性이 없다면 知性は 단지 협의의 理智主義가 될 뿐이다. 賀麟이 말한 後理智的 直覺은 理性에 해당하며, 理性的 直覺을 의미한다.<sup>17)</sup> 後理智

13)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4쪽.

14)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105쪽.

15)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4쪽.

16)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105쪽.

17) 宋志明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해는 신비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독일 고전철학가의 이성주의 정신과 완전히 일치한다.” 宋志明, 『賀麟新儒學思想研究』, 天津人民出版社, 1998년, 251쪽.

的 直覺은 철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賀麟은 다시 理性을 二元의 통일, 변증적 통일, 復多의 통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復多의 통일에 대해, 賀麟은 대체로 朱子가 말한 “物의 本末 精粗가 갖춰지지 않음이 없고, 내 마음의 全體 大用이 밝지 않음이 없는” 覺醒관통한 直覺 境界라고 생각하였다.<sup>18)</sup> 賀麟의 사유 방식에 따르면, 理智가 비록 直覺으로 인해 획득한 재료를 분석해 낼 수 있지만, 直覺의 助力이 없다면 결코 전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感性 知性 理性 가운데 어떤 한 가지라고 결핍될 수 없는 단계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先理智的 直覺으로부터 後理智的 直覺으로 轉化되는 가운데, 理智는 필수 불가결한 중간 연결 부분이 된다.<sup>19)</sup> 그래서 賀麟은 “直覺과 理智는 곧 동일한 思想歷程의 다른 단계 혹은 다른 방면을 대표하며 결코 근본적인 충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근대 철학 및 현대 철학의 추세는 직각적 방법과 이지적 방법의 綜貫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였다.<sup>20)</sup> 이를 통해 賀麟의 철학 속에서 만약 直覺의 도움이 없다면 理智는 단지 부분적 연구만이 가능하며 과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만약 理智가 없다면 직각은 경험에 불과하며 철학의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지와 직각 사이에 상보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21)</sup>

### 3. 直覺의 含意와 區分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直覺은 어떠한 논리적 추리와 연역을 거치지 않

18)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6쪽.

19) 宋志明, 『賀麟新儒學思想研究』, 天津人民出版社, 1998년, 253쪽 참조.

20)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6쪽.

21) 이와 관련하여, 張學智는 “賀麟은 直覺은 理智를 기초를 삼고, 理智는 直覺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張學智, 『賀麟』, 東大圖書公司, 1992년, 44쪽.

고 직접적으로 지식을 얻는 인식 기능과 작용을 의미한다. 賀麟은 원래 直覺 방법의 의미는 매우 복잡하며, 직각 방법의 종류 역시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였다. 直覺에 대해, 賀麟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直覺은 理智의 同情으로써 사물을 體察하고 理智의 사랑(愛)으로써 사물을 玩味하는 방법이다.<sup>22)</sup>

體驗의 방법(體驗法)이란 理智의 同情으로써 외부 사물을 體察하며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다. 어떤 한 사물을 이해하려면 同情的 태도로 이해해 나가야 한다. 체험의 방법은 주관적인 선입견을 지닌 것을 가장 꺼리며, 자이를 잊어버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인식 대상 속으로 뛰어들어 절실하고 깊이 있게 體察해야 한다.<sup>23)</sup>

賀麟이 말한 ‘理智의 同情’(intellectual sympathy)은 베르그손(Bergson)의 철학에서 유래한다. 베르그손의 철학 속에서 理智의 同情은 ‘理智의 交融’ 혹은 ‘理智의 共感’을 가리킨다. 베르그손은 直覺이 바로 일종의 理智의 交融이라고 주장하였다.<sup>24)</sup> 베르그손의 견해에 따르면, 理智의 交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대상의 내부에 두고 綿延(durée) 絶對 本質을 체험할 수 있다. 만약 理智가 외부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直覺은 대상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것과 서로 融合하는 것이다.

賀麟에게 있어 이른바 直覺과 體驗의 방법은 서로 같은 의미를 지닌

22)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7쪽.

23) 賀麟, 『讀書方法和思想方法』, 178쪽.

24) 全增嘏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서 말하는 理智의 交融은 일종의 정상적인 감각 사유 등 理智的 認識形式을 넘어선 內心の 體驗을 의미한다. 이러한 體驗 속에서 主體는 직접적으로 流動 중인 대상을 파악하며, 그것과 완전하게 融合한다. 全增嘏, 『西方哲學史』(下冊), 上海人民出版社, 1985년, 540쪽. 한편 張學智는 “理智의 同情 理智의 사랑은 일종의 態度이자 懷抱로, 사물을 體察하고 玩味하는 일종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張學智, 『賀麟』, 東大圖書公司, 1992년, 112쪽.

다. 賀麟은 일찍이 “여기서 논하는 體驗은 실제로 독일의 文化哲學 연구자인 딜타이(Dilthey) 등이 말한 체험과 프랑스의 베르그손이 말한 直覺을 포함한다.”고 말하였다.<sup>25)</sup> 體驗의 방법의 함의에 대해 賀麟은 “체험의 방법은 虛心忘我한 자세로 사물의 내재적 본질이나 命脈 속으로 깊이 파고들어가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감상하려는 것이지, 겉으로부터 데면 데면한 묘사나 개관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체험을 일종의 세밀하고 심각하고 절실하게 앎을 구하는(求知) 방법이다. 체험은 곧 ‘理會’이란 의미이다. 이른바 理會란 理智로써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人生을 體察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정신생활 혹은 문화 창조를 연구하는데 특별히 적용하여 사용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sup>26)</sup> 이로부터 賀麟이 말한 直覺 내지 體驗은 논리적 의미의 마음 즉 心卽理의 마음이 대상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 대상의 의미 가치를 깨닫고 감상하는 것이자 동시에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賀麟이 말한 後理智的 直覺 혹은 體驗의 방법은 理智의 同情 理智의 사랑으로써 對象에 담겨 있는 眞善美의 의미를 깨닫고 감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直覺 방법의 본질은 理智의 同情이며 또한 곧 後理智的 同情이다.<sup>27)</sup>

直覺에 관한 이해에 있어, 賀麟이 비록 확실히 베르그손의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또한 베르그손과는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베르그손은 直覺과 理智는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인식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直覺과 理智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賀麟에게 있어 진정한 直覺은 理智와 直覺이 相補的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後理智的 直覺을 가리킨다. 賀麟의 직각 방법은 스피노자(Spinoza)가 “인

25) 賀麟, 「讀書方法和思想方法」, 179쪽.

26) 賀麟, 「讀書方法和思想方法」, 178쪽.

27)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105쪽.

식에 대한 올바른 관념이 많을수록, 우리가 앎을 구하는 방법이 더욱 完善해진다.”<sup>28)</sup>, “방법은 眞觀念(理智)의 획득에서 비롯된다.”<sup>29)</sup>고 말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은 眞理 實在를 파악하는 방법은 理智가 얻은 지식에서 시작되며, 理智가 획득한 知識이 많을수록 철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 역시 더욱 完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賀麟은 “直覺의 방법은 끊임없이 改善되고 있으며, 이치를 축적한 것이 많을수록 學識은 더욱 증진하고, 涵養함이 純熟할수록 방법 역시 그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욱 完善해진다.”고 말하였다.<sup>30)</sup> 賀麟에게 있어 理智는 直覺의 도움이 있어야만 비로소 全體를 파악할 수 있고, 直覺 역시 理智의 작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진리를 인식하고 실재를 파악하는 진정한 直覺이 될 수 있다. 이로써 賀麟은 理智와 直覺의 대립을 뛰어넘어 理智와 直覺 간의 종합과 통일을 기획했다고 말할 수 있다.

同一한 直覺 방법으로 외부를 관찰 인식할 수 있고, 또한 내면을 省察할 수도 있다. 直覺 방법의 한 측면은 理智의 同情으로써 自然 歷史 書籍 등과 같은 것을 관찰하는 것을 중시한다. 直覺 방법의 또 다른 한 측면은 내면을 반성하고 體察하는 것을 중시하는데, 대체로 베르그손이 同情의으로 자신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으로는 내면을 반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외부를 透視한다. 자신의 本心 혹은 본성을 인식하려면 反省式 直覺에 의지함이 있어야 한다. 외부의 物理 혹은 物性を 인식하려면 透視式 直覺에 의지함이 있어야 한다.<sup>31)</sup>

28)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4쪽.

29)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105쪽. “스피노자에게 있어 직관이란 단 한 번의 정신 활동으로 자명해진 전제의 타당한 증명을 이해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제의 의미와 진리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의미한다.” 로저 스크러턴 지음, 정창호 옮김, 『스피노자』, 시공사, 2000년, 98쪽.

30)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4쪽.

31)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7쪽.

賀麟은 직각의 기능과 작용을 ‘외부를 향한 관찰 인식’과 ‘내면을 향한 省察’로 구분하였다. 자연이나 역사 서적 등은 모두 외부로 향한 관찰과 인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외부로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은 단지 理智로써 대상을 분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심의 체험으로써 대상이 지니고 있는 物理 物性 내지 本質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베르그손이 말한 ‘동정적으로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면을 향해 고요히 자신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sup>32)</sup> 내면을 향한 성찰은 내면을 향한 반성을 통해 자신의 本心 本性을 인식하는 것이다. 賀麟은 동일한 직각이 지니고 있는 기능을 이와 같은 두 방향으로 구분하고, 그것들을 각기 ‘透視式 直覺’과 ‘反省式 直覺’이라 칭하였다.

한편 賀麟은 주자와 육상산의 直覺 방법이 각기 투시식 직각과 반성식 직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賀麟은 또한 비록 朱陸 兩者의 직각 방법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송대 유학자들이 公認했던 “外物과 나(我)에게는 동일한 道理가 내재하기에, 저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니, 內외의 道를 합함이다”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理智의 同情으로서 외부로 향해 궁구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내면을 향해 반성하여 본심을 회복하는 것 또한 物理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 역시 마음과 도리의 일치, 개인과 우주의 合一이라는 신묘한 경지에 도달함으로 귀결되니, 두 가지는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3)</sup> 그리고 賀麟은 “論理上 物은 영원히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物의 意義 價值 및 법칙이 모두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했기에<sup>34)</sup>, 物理를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本心 本性을 이해하는 것이며, 자신의 本心 本性을 이해하는 것이 곧 物理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32) 尙新建, 『重新發現直覺主義：柏格森哲學新探』,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111쪽.

33)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7~88쪽.

34) 賀麟, 『何謂唯心論』, 『近代唯心論簡釋』, 商務印書館, 2011년, 338쪽.

賀麟은 육상산의 직각 방법을 각기 ‘독서하지 않음’과 ‘본심을 회복함’이란 특징을 지닌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이른바 ‘독서하지 않음’이란 직각의 소극적 방면을 의미한다. 賀麟은 맹자와 老莊 그리고 루소(Rousseau)의 예를 들어 “실제로 古今中外에 무릇 先天主義를 견지했던 철학자들은 대부분 독서에 반대하는 추세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주장하였다.<sup>35)</sup> 육상산은 일찍이 “나는 책을 읽을 때 단지 古註만을 본다. 聖人の 말씀은 본래 명백하다. 예를 들어 ‘弟子들은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밖으로 나오면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너는 집에 들어가면 효도하고 밖으로 나오면 공경하라고 말한 것이니 어찌 반드시 傳과 註가 필요하겠는가! 배우는 사람들은 이러한 傳과 註에서 정신이 피곤해지고 이로써 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진다. 나에게 이르면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니 이것이 바로 格物이다.”라고 말하였다.<sup>36)</sup> 이에 근거하여 賀麟은 육상산의 학문 방법에 대해 “먼저 학술 문화에 있어 부담을 경감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식을 제거하여 자신의 本心을 지키고, 교육에 의한 잘못, 서적에 의한 폐해, 文字에 의한 얽매임에서 벗어날 것을 중시하였다.”고 생각하였다.<sup>37)</sup> 賀麟은 교육에 의해 잘못됨이란 문제를 책을 읽지 않는 직각 방법과 결합하였다. 賀麟은 독일어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릇된 교육을 한다는 의미의 ‘verbildet’란 단어를 사용하여, 교육에 의해 사람들의 본성과 天真함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산타야나(Santayana)의 懷疑主義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 학자들의 心靈의 貞操를 지키게 할 수 있고 경솔하게 옛 사람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賀麟은 육상산의 책을 읽지 않는 직각의 방법 역시

35)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8쪽.

36) 陸九淵, 『陸九淵集』, 「語錄下」卷35. 某讀書只看古註, 聖人之言自明白. 且如‘弟子入則孝中, 出則弟.’, 是分明說與你入則孝, 出則弟, 何須得傳註! 學者疲精神於此, 是以擔子越重. 到某這裏, 只是與他減擔, 只此便是格物. 中華書局, 1980년, 441쪽.

37)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9쪽.

“이 마음을 모든 것에서 벗어나 황폐한 땅위에 새로이 서도록 하여 모든 것이 참된 자아를 주인으로 삼는 것에서 비롯되고 本心을 출발점으로 삼는” 작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sup>38)</sup>

賀麟은 또한 ‘本心을 회복함’이 육상산의 직각 방법의 적극적인 방향을 가리킨다고 말하였다. 賀麟은 몇 가지 방향에 있어 본심 회복의 직각 방법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베르그손 및 칸트의 철학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자신의 본심을 반성하고, 他人을 계발하며 일깨움을 강조하고, 그들의 고유한 선천적 理性을 회복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보자면, 본심 회복의 직각 방법은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플라톤의 상기설과 비슷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산파술 역시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도덕관념을 반성하도록 계발함이 있고”, “상기법 또한 원래 固有했지만 나중에 망각되고 은폐된 이데아 혹은 본심을 회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9)</sup> 또한 賀麟은 “스스로 자신의 본심을 반성하고, 스스로 자신의 참된 자아를 體認하며, 스스로 자신의 참된 생명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볼 때, “베르그손이 말한 스스로 자신에게 同情을 표현한다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sup>40)</sup>

나아가 賀麟은 육상산이 말한 본심과 王陽明이 언급한 良知는 모두 사람들이 固有한 것이지 결코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賀麟은 “陸象山과 王陽明의 방법이 외부를 향해 연구하는 경험적 방법으로 채택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내면을 향해 반성하여 본심을 회복하는 직각의 방법을 제기하였다.”고 설명하였다.<sup>41)</sup> 賀麟은 陸象山과 王陽明의 내면을 향한 反省式 直覺 방법이 대체로 칸트의 道德律과 가깝다고 보았다. 賀麟은 “칸트가 말한 도덕률은 곧 내가 본래

38)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9쪽.

39)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91쪽.

40)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90쪽.

41)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93쪽.

지니고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며, 마음과 理가合一된 良心 혹은 本心이다. 이러한 도덕률을 인식하고자 한다면 외부를 향해 연구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내면을 향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sup>42)</sup> 賀麟은 사람들이 본심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指摘 일깨움 계발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賀麟은 만약 자신의 본심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體驗 省察 反省 反求諸己의 직각 방법을 거쳐 본심이 氣稟 私欲 物欲 등에 의해 가려져 그 고유한 功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4. 朱子の 直覺法

反省式 直覺法이외에, 賀麟이 말한 透視式 直覺法은 주자의 格物致知 독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賀麟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자가 「大學 格物補傳」에서 말했던 “힘쓰기를 오래하여 어느 날 豁然洞通함에 이르면 모든 사물의 表裏 精粗에 이르지 않음이 없고, 내 마음의 全體 大用이 밝지 않음이 없을 것”임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철학 혹은 성리학의 지식을 탐구하는 직각 방법이자, 직각이 도달할 수 있는 最高 最後의 경지라고 설명하였다. 이로부터 賀麟이 생각했던 後理智的 直覺說의 중점은 확실히 透視式 直覺 즉 주자의 格物致知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賀麟은 주자의 격물설이 비록 과학적 방법은 아닐지라도 科學 理智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순수한 수양 방법은 아닐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宋儒들이 말했던 ‘德性之知’ 혹은 근래에 사람들이 말하는 ‘價值的 知識’ 혹은 ‘規範的 知識(knowledge of the value or norm of things)’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sup>43)</sup> 그리고 賀麟은 수양과 求知의

42)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93쪽.

43)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95쪽.

방면에서 볼 때, 주자가 내면을 향한 反省 放心을 구함 본심의 회복 등을 중시한 것은 육상산과 마찬가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자는 본심을 회복함이 格物窮理의 공부를 해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理想的인 境地로 간주하였기에, 賀麟은 본심의 회복에 관한 주자와 육상산의 견해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주자는 일찍이 “배우는 사람이 책을 읽은 때는 반드시 몸가짐을 가다듬어 반듯하게 앉아, 천천히 보면서 나지막하게 읽으며, 마음을 비우고 깊이 몰두하여, 자신에게 절실하고 상세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sup>44)</sup> 이 구절 가운데, 賀麟은 ‘마음을 비우고 깊이 몰두하여, 자신에게 절실하고 상세히 살펴야 한다’(虛心涵泳, 切己體察)는 말로 주자의 직각 방법을 개괄하였다.

마음을 비움(虛心)은 객관적이며 선입견이 없는 것이고, 자신에게 절실함(切己)은 처지를 바꿔 놓고 생각하는 것으로 외부 사물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고 이러한 마음으로써 외부 사물을 살피는 것이다. 상세하게 살핌(體察)은 理智의 同情으로 이해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깊이 몰두함(涵泳)은 급박하지 않고 경솔하지 않으며 여유 있고 침착하게 玩味하고 觀賞한다는 뜻이다.<sup>45)</sup>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賀麟은 直覺을 理智의 同情으로써 사물을 體察하고, 理智의 사랑으로써 사물을 玩味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賀麟의 주장에 따르면, ‘깊이 몰두함’과 ‘상세하게 살핌’은 외부를 향해 관찰하고 인식하는 透視式 直覺의 구체적인 방법을 가리키며, ‘마음을 비움’과 ‘자신에게 절실함’은 主體가 마땅히 갖춰야 하는 일종의 기본적인 조건 내지 태도를 의미한다. 주자가 정이천의 이론을 수용하여 格物을 ‘사물에 이름’(至物)으로 해석한 것에 관해, 賀麟은 그 중에 첫째, 외

44) 『朱子語類』卷11. 學者讀書, 須要斂身正坐, 緩視微吟, 虛心涵泳, 切己體察.

45) 賀麟, 「宋儒의 思想方法」, 101쪽.

부 사물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어 간격이 없고 둘째, 사물의 중심에 깊이 들어가 그 본질을 투시하지 헛되이 그 겉모습만을 관찰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며 셋째, 외부 사물과 하나가 되는 物我無間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sup>46)</sup> 이것은 주로 선입견이 없이 外物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태도로써 대상을 體察하고 涵泳하여 대상의 本質 物我無間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賀麟은 또한 주자의 직각 방법과 서양 철학의 직각 방법을 비교하였다. 주자는 일찍이 “이제 책을 읽을 때, 반드시 깊이 파고 들어가 탐구하는 노력을 더해서 義理를 가슴속에 붙여넣어 저 수많은 천박하고 비루한 이해를 깨끗이 씻어내야 비로소 識見이 높고 명석해질 수 있다.”<sup>47)</sup> “무릇 책을 읽는 것은 … 과실을 먹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잘게 씹어 부서뜨려야 그 맛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 또한 과수원지기가 과수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그루 그루마다 물을 주어 … 흙과 서로 잘 합해지게 해야 나무가 그 수분을 얻어 자연스럽게 생장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sup>48)</sup> 이와 같은 주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賀麟은 주자의 설명방식이 키에르케고르와 딜타이의 직각 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直覺이란 일종의 정신적 생활 혹은 문화적 체험 (Erlebnis)으로부터 眞善美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능과 작용이라고 생각하였다. 直覺은 일종의 文化的인 價值生活을 감상하는 것이자 문화적 가치를 체인하여 정신과학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직각 방법은 價値를 대상으로 삼으며, 문화적 생활이 충실해지고 풍부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sup>49)</sup>

46)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101쪽.

47) 『朱子語類』卷104.(10조목) 如今讀書, 須是加沈潛之功, 將義理去澆灌胸腹, 漸漸滌去那許多淺近鄙陋之見, 方會見識高明.

48) 『朱子語類』卷10.(50조목) 大凡讀書, … 如喫果子一般, … 須是細嚼教爛, 則滋味自出, … 園夫灌園, … 株株而灌之. … 泥水相和, 而物得其潤, 自然生長.

賀麟은 주자가 가장 즐겨 사용했던 ‘理會’라는 용어가 ‘깊이 파고 들어가 탐구하고’, ‘여유 있게 완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베르그손이 말한 ‘理智의 同情’에 상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아울러 “道에 들어가는 관건은 자기 자신을 저 道理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점점 道와 친근해지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道와 자신이 하나가 된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道理는 여기에 있지만 자신은 밖에 있으니 일찍이 서로 관련된 적이 전혀 없다.”<sup>50)</sup>는 주자의 말에 대해, 賀麟은 物의 내면으로 들어가 物과 하나가 되야지 외부에 서서 살펴보는 안 된다는 베르그손의 주장과 近似하다고 생각하였다.<sup>51)</sup>

賀麟은 또한 주자와 스피노자의 직각 방법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스피노자의 직각 방법에 대해, 賀麟은 그가 直覺을 功利 時間 意欲을 넘어선 인식주체로 여기며, 靜觀을 그 본질로 삼는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직각의 방법은 형이상학적 眞理를 대상으로 삼으며, 생활의 초탈함과 고결함, 마음과 진리의 일치 등을 목적으로 삼는다.<sup>52)</sup> 나아가 賀麟은 주자가 말한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聖人の 말씀으로써 聖人の 말씀을 보아야 한다. 物을 기준으로 物을 보아야지 자신을 기준으로 物을 보아서는 안 된다.”<sup>53)</sup>, “책을 기준으로 책을 보고, 物을 기준으로 物을 보아야지, 먼저 자신의 의견을 세워서는 안 된다.”<sup>54)</sup> 고 말한 것을 스피노자의 직각법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賀麟에 따르면, 주자의 이와 같은 설명은 스피노자가 영원한 형식적 본질(範型)로부터 사물을 관찰하고 인식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직관지식에 도달한다고 주장한 것과 동일한 정신을 지니고 있

49)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101쪽.

50) 『朱子語類』卷8.(88조목) 入道之門, 是將自家身已入那道理中去. 漸漸相親, 久之與己爲一. 而今人道理在這裏, 自家身在外面, 全不會相干涉.

51)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103쪽.

52)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102쪽.

53) 『朱子語類』卷11.(35조목) 放寬心, 以他說看他說. 以物觀物, 無以己觀物.

54) 『朱子語類』卷11.(36조목) 以書觀書, 以物觀物, 不可先立己見.

다.<sup>55)</sup> 賀麟은 주자의 직각법이 이와 같은 서양 철학의 직각법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賀麟이 중시한 ‘虛心涵泳, 切己體察’은 원래 주자의 독서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육상산과 달리, 주자의 철학체계 속에서 독서는 格物致知를 실천하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대체로 학문의 방법은 道理를 궁구함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窮理의 요점은 반드시 책을 읽는데 있습니다. … 세상의 도리를 궁구하고자 하면서 책에서 그 도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바로 담장을 마주하고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sup>56)</sup>

세상의 모든 것은 도리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정밀하고 심오한 함의는 이미 성현의 글 속에 갖춰져 있으니, 반드시 성현의 책으로 말미암아 도리를 구해야 한다.<sup>57)</sup>

주자는 모든 사물은 모두 理를 지니고 있지만, ‘그 정밀하고 심오한 함의는 이미 성현의 글 속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학문의 방법은 道理를 窮究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이러한 窮理의 요점은 반드시 책을 읽는데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자의 철학 속에서, 직접적으로 사물과 접촉하여 理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讀書를 통하여 理를 체험하는 것이다. 독서에 기초한 주자의 直覺法은 결코 무조건적으로 경전을 암송하거나 고지식하게 사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賀

55)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102쪽. 스피노자의 直覺法 에 대해 賀麟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스피노자의 直覺法은 바로 佛家에서 말하는 ‘道眼觀一切法’의 道眼 혹은 慧眼이며, 莊子가 말한 ‘以道觀之, 物無貴賤’의 ‘道觀法’이자 또한 주자가 말한 ‘以天下之理觀天下之事’의 ‘理觀法’이다.” 『스피노자의 생애와 그 이론의 大旨』, 『近代唯心論簡釋』, 150쪽.

56) 『朱熹集』 卷14, 『行宮便殿奏劄二』(546쪽) 蓋爲學之道, 莫先於窮理, 窮理之要, 必在於讀書. … 欲窮天下之理而不即是而求之, 則是正牆面而立爾.

57) 『朱熹集』 卷59, 『答曹元可』(3012쪽) 夫天下之物莫不有理, 而其精蘊則已具於聖賢之書, 故必由是以求之.

麟의 설명에 따르면, 일종의 체험으로써의 주자의 독서법은 虛心 切己의 태도를 지닌 주체가 세상의 모든 도리를 함축하고 있는 성현의 책을 통해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감상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활동과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체의 행위 방향을 결정하는 즉 주체의 主宰 역량을 배양해 나갈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주자의 格物致知說은 독서 혹은 외부를 향한 관찰 인식을 통해 眞 善 美를 체험하고, 나아가 主客對立을 초월하여 主客이 合一되고, 마음과 道理가 合一되며 本心을 회복하는 정신적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직각법이라 말할 수 있다.

## 5. 결론

인식의 영역에 있어 賀麟은 도덕과 과학의 동일한 기초에 대한 탐구 내지 전통 철학 속에서 과학의 근거를 찾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賀麟은 “直覺을 터무니없이 큰 소리만 치고 직선적인 反理性主義로부터 구해내, 그 정당한 지위를 회복하고, 그 합당한 효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sup>58)</sup> 賀麟보다 앞서 양수명과 웅십력은 모두 불교의 唯識學을 끌어들여 직각과 理智, 도덕과 과학의 의미 관계 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賀麟은 두 사람의 설명 방식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며, 철학과 과학 사이에는 여전히 일정한 간격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賀麟은 또한 풍우란이 直覺을 철학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승인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賀麟은 직각과 理智의 상호 대립이라는 관점을 초월하여 “도덕적 예술적 과학적 혹은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는 直覺”을 건립하고자 하였다.<sup>59)</sup>

直覺에 관한 주장에 있어, 賀麟은 먼저 직각을 感性的 直覺으로서의

---

58)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7쪽.

59) 賀麟, 「宋儒的思想方法」, 80쪽.

先理智的 直覺과 理性的 直覺으로서의 後理智的 直覺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賀麟은 後理智的 直覺을 ‘경험이자 방법’ 즉 철학 혹은 형이상학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을 통해 直覺은 더 이상 反理性 혹은 無理性的인 신비한 경험을 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나아가 賀麟은 주로 스피노자 베르그손 딜타이 등의 철학을 수용하여 直覺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賀麟의 철학 속에서 直覺은 사물을 體察하고 자신을 반성하는 사유 방법이다. 또한 賀麟은 직각과 理智 사이에 상보적 유기적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理智는 직각의 도움에 의지하여야 비로소 사물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 그 본질 의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賀麟은 이러한 방법을 後理智的 直覺이라 불렀다.

끝으로 賀麟은 중국의 전통 철학 속에서 後理智的 직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賀麟은 後理智的 直覺을 외부를 향한 관찰 인식과 내면을 향한 성찰이라는 두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賀麟은 내면을 향한 성찰로써 본심의 회복을 중점으로 삼는 육상산의 反省式 직각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賀麟은 반성식 직각 방법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베르그손 칸트의 철학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賀麟은 외부를 향한 관찰 인식으로서 格物致知와 讀書를 중심으로 하는 주자의 투시식 직각 방법을 설명하였고, 투시식 직각 방법 속에는 키에르케고르 딜타이 베르그손 스피노자 철학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볼 때, 賀麟은 직각의 방법을 통해 주자와 육상산, 중국 철학과 서양 철학의 分岐를 융합하고 나아가 중국 전통 철학의 현대화를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賀麟은 일찍이 전통적인 體用觀에 기초하여 이른바 體用不可分離 體用不可顛倒 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賀麟은 철학과 과학, 종교와 도덕, 예술과 기술 등이 각각 體와 用의 관계를 지니며, 이러한 文化의 각 부분은 모두 유기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꿔 말하

자면, 賀麟에게 있어 철학은 과학의 體이며 과학은 철학의 用이다. 나아가 철학 혹은 과학을 막론하고 모두 마음(心)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賀麟은 철학과 과학을 융합할 수 있는 인식체계 방법을 건립하고자 하였다. 賀麟의 사유방식에 따르면, 철학과 과학의 體用 관계 속에서 철학의 발전은 과학에게 더욱 믿을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과학의 발전 역시 철학에게 더욱 치밀하고 정확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賀麟은 철학과 과학 사이에는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直覺과 理智 사이에도 유기적 통일성이 있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功能이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直覺說을 중심으로 한 賀麟의 철학적 시도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서양 철학에 대한 賀麟의 이해 역시 精深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賀麟이 직각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으며, 賀麟의 이론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유의미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참고문헌

- 賀麟, 『文化與人生』, 商務印書館, 1988년.  
賀麟, 『近代唯心論簡釋』, 商務印書館, 2011년.  
賀麟, 『五十年來的中國哲學』, 上海人民出版社, 2012년.  
張學智, 『賀麟』, 東大圖書公司, 1992년.  
宋志明, 『賀麟新儒學思想研究』, 天津人民出版社, 1998년.  
鄭家棟, 『現代新儒學概論』, 廣西人民出版社, 1990년.  
呂希晨, 『中國現代文化哲學』, 天津人民出版社, 1993년.  
梁漱溟, 『東西文化及其哲學』, 商務印書館, 1999년.  
熊十力, 『新唯識論』, 中華書局, 1985년.  
馮友蘭, 『中國哲學史』(上冊),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년.  
朱熹, 『朱熹集』, 郭齊 尹波 點校, 四川教育出版社, 1996년.  
朱熹, 『朱子語類』, (宋)黎靖德 編, 王星賢 點校, 中華書局, 1994년.  
陸九淵, 『陸九淵集』, 鍾哲 點校, 中華書局, 1980년.  
全增嘏, 『西方哲學史』(下冊), 上海人民出版社, 1985년.  
尙新建, 『重新發現直覺主義: 柏格森哲學新探』, 北京大學出版社, 2000년.  
로저 스크러턴 지음, 정창호 옮김, 『스피노자』, 시공사, 2000년.  
연재흠, 「賀麟의 體用觀과 文化批評 研究」, 『중국학보』 제68집, 한국중국학회, 2013년.

## A Study on He Lin's Intuitionism (賀麟之直覺說研究)

Yeon, Jaeheum (延在欽, Korea Air Force Academy)

在現代新儒學的演變過程中，關於‘理智’和‘直覺’的理解具有非常重要的意義。賀麟要消解理智和直覺的對立而建立把兩者融合在一起的認識體系。賀麟把人們的‘心’劃分‘心理意義的心’與‘邏輯意義的心’。在賀麟哲學裏，所謂‘邏輯意義的心’不但是指理想的超經驗精神原則，即是理，而且是指能夠統攝經驗主宰行爲(善)組織知識(知)評判價值(美)的真正的主體。

賀麟所謂‘直覺’意味邏輯的意義的心，就心即理之心深入到對象的內面而領會和欣賞對象的意義價值，而且反省自己。賀麟以理智為中心而把劃分為‘先理智的直覺’與‘後理智的直覺’。先理智的直覺是指先在於理智的直覺，它既是屬於經驗的領域，又是稱為一種感性的直觀。賀麟所謂後理智的直覺可以說先用理智而後用直覺的意思。在賀麟那裏，所謂先理智的直覺隨然被稱為一種直覺，但是絕對沒有作為一種方法的意思。只有所謂後理智的直覺，才能夠具備作為‘亦經驗亦方法’的真正的直覺的意義。在這裏，值得注意的是作為一種方法的後理智的直覺將理智的作用包括在內。

賀麟把直覺的功能區分為‘向外觀認’與‘向內省察’，而把如此兩種功能各個稱為‘透視式的直覺’與‘反省式的直覺’。賀麟認為陸象山和朱熹的直覺法，正好個別代表反省式和透視式的直覺法。賀麟用向內省察來說明以回復本心為重點的陸象山的反省式直覺法，而且賀麟顯現出反省式直覺法與蘇格拉底(Socrates)柏拉圖(Platon)柏格森(Bergson)以及康德(Kant)的哲學的相同之處。再加，賀麟用向外觀認來說明以格物致知和讀書為中心的朱熹的透視式直覺法，而主張其中含蓄著基爾哥德(Kierkegaard)狄爾泰(Dilthey)柏格森 斯賓諾莎(Spinoza)哲學的因素。

賀麟非常重視朱熹的透視式的直覺法。賀麟主張作為一種體驗的朱熹的讀書

法是具備著虛心 切己의態度的主體經過含蘊天下之理의聖賢之書而理會和欣賞它的意義和價值. 同時隨著這些活動和結果自然地決定主體의行爲方向, 卽可以培養主體의主宰功能. 換句話說, 朱熹의格物致知說經過讀書或向外觀認而體驗到眞 善 美, 進而超越主客對立而達到主客合一 心與理一 回復本心의精神境界. 賀麟要用直覺法來融合東 西哲學與朱 陸哲學의分岐, 進而追求中國傳統哲學의現代化. 由此可說, 雖然賀麟之直覺說沒有引起強烈反響, 但是他的看法還是具有相當重要的意義.

**Key words :** 賀麟(He Lin), 理智(understanding), 直覺(intuition),  
陸象山(Liu Xiangshan), 朱熹(Zhu Xi)

연재흠 E-mail : dolsoyjh@hanmail.net

투 고 일	2015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5년 04월 25일
게재확정	2015년 05월 15일